



### 옥명희대표 : 인삼문화 전승은 어릴 때부터 틀어줘야



“인삼은 동북지역 민간전설과 전통 의약 문화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아이들이 일찍부터 인삼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고향의 문화적 저력을 심층적으로 료해하게 하는 것은 중의약문화의 혈맥을 이어하고 전승하는 데 유리하며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년에 한번 열리는 랑회에서 전국인대 대표 옥명희는 가슴이 벅차올랐

다. 그녀는 기자에게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인삼문화의 전승을 틀어주는 것을 추진할 것인지’가 올해 그녀가 주목하는 중점문제라고 말했다.

옥명희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정부 주도로 인삼산업의 특성과 결합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조율해 부동한 연령대 학생들을 위한 적합한 과학보급교재와 실천지도수첩을 편찬해야 한다. 교원들에 대한 특색산업 지식 양성을 진행하고 인삼산업 전문가, 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겸직교원을 맡게 하거나 특별강연, 기술지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취와 직업적 동경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학교는 현지 산업단지, 기업과 협력하여 교내 혹은 교외 실천기지를 건립할 수 있다. 소학생들은 인삼재배원에 가서 참관하고 중학생들은 실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중소학생인지 특성과 학습 수요에 결부하여 계통적인 인삼산업 연구학습 수업체계를 개발하여 관련 학과 수업에 융

합시킬 수도 있다.” 옥명희는 연구와 학습을 융합시켜 인삼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고향의 특색산업을 접하면 고향에 대한 강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옥명희는 이런 감정적 뉴대는 그들이 미래에 고향의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지어 고향의 특색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추동하여 동북지역 문화의 번영과 전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가 제출한 건의는 국가 관련 부문의 높은 중시를 받았고 일련의 지원정책이 출범되었다. 자신이 제출한 건의가 채택되고 낙착되는 것을 보고 옥명희는 인대대표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도 정부와 군중의 교량 뉴대 역할을 충실히 발휘시켜 길림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을 기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민넷 - 조문판

### 리화약위원 : 지혜농업시범기지 구축 기대



량곡 안전을 보장하는 데로부터 경작지 자원을 보호하기까지, 자연보호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로부터 동북 흑토지의 수토유실을 정비하기까지... 연속 2기 전국정협 위원인 리화약은 지난 몇년간 흑토지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흙의 온기’가 느껴지는 제안들은 그가 얼마나 확고하고 꾸준히 직무를 수행해왔는지를 보여준다.

2018년, 리화약위원은 <우리 나라 자연보호구 관리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정리하여 자연보호구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해야>라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는 그해 전국정협

중점 제안 및 제 13기 전국정협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구에 ‘생태회저선’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21년에 제출한 <흑토지 수토유실 관리 투자 확대에 관한 제안>은 관련 부, 위원회의 적극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전국정협은 해당 년도 흑토지 보호를 전국정협 중점 감독 및 조사 내용으로 선정했으며 ‘14.5’ 기간 (2021-2025)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삼았다. 2023년에 제출한 <성급 경작지 보호 책임보상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제안>은 관련 부, 위원회의 적극적인 회담을 받았고 동북지역에서 경작지 보호 임무를 잘 완수한 지역이 국가 장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추진했다...

올해 전국 랑회에서 리화약은 사평시 옥수수특색산업집진구 건설 지원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사평시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있으며 길림성의 남쪽 개방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또한 현대농업이 발달해 있어 옥수수 특색산업집진구를 구축하기에 충분한 장점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가 량곡 안전 전략을 실현하고 신질생산력으로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리화약은 구조가 합리적이고 생산공정이 완벽한 옥수수특색산업집진구를 구축하면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승격을 추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림 향촌 진흥에 강력한 산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단백옥수수, 선식옥수수 등 같은 업계 선두기업을 도입하여 육종모형을 변경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 고품질 곡물을 고품질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수수특색산업집진구를 구축하면 더 넓은 발전 공간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많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인재와 농업 전문기술 인재들이 길림성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를 위해 리화약은 관련 부문에서 사평의 지혜농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지혜농업을 1, 2,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산업의 집적 효과를 한층 더 높여 국가급 지혜농업시범기지로 구축하기를 바랐다.

/ 길림일보

### 려위대표 : 정신이 진작되고 의욕이 충만된다



“랑회 전담, 민영기업좌담회가 열렸다. 또한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착실히 시달하고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을 제기했다. 민영기업에서 온 전국인대 대표로서 민영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중시는 나를 진작시키고 감동시켰다.”

3월 5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흑룡강 풍덕항태양유한회사 리사장인 려위

(조선족)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했다.

려위는 “이는 당과 국가가 시종 민영기업의 가장 든든한 뒤심을 명확히 보여주는바 우리에게 미래 발전의 광활한 전망을 보여주었다. 정책적 보장이 있으면 민영기업은 혁신과 발전에 전념할 수 있고 신질생산력 발전의 물결 속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더욱 큰 힘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인민넷 - 조문판

### 김현위원 : APP 플랫폼의 쌍방향 채점 메커니즘 구축해야



모바일 인터넷 발전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APP 플랫폼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며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히 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규모 확대와 사용자수의

급증에 따라 업체와 사용자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정협 14기 3차 회의에서 전국정협 위원 김현(조선족)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통찰을 가지고 APP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간의 공평하고 상호 신뢰하는 쌍방향 채점 기제에 대한 제안을 제기했다.

김현은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단방향 채점 기제가 어느 정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지만 상가의 정당한 권익을 무형중에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개인적인 감정, 있다 심지어 악의적인 경쟁의 목적으로 임의로 낮은 점수의 평가를 부여하여 업체의 평판에 헤아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힌다. 심지어 채점 기제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인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하기도 한다. 김

현은 “이대로 계속 가면 업체와 소비자간의 신뢰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영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결국 전체 플랫폼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현은 앱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간의 쌍방향 채점 기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쌍방향 평가를 통해 소비자는 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료해할 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악플과 부당한 요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항소 기제를 구축하여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인민넷 - 조문판

### 려애휘위원 : 타성의 전국정협 위원들을 길림성에 초대합니다

“저는 길림성에 가본 적이 있고 길림성농업과학원 등 부문과도 교류 협력 있었어요. 길림은 경치가 아름답고 길림입쌀은 맛있죠.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어요!”

“우리 길림성에는 장백산도 있지요.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여름에는 피서를 즐길 수 있죠.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해요. 저의 고향 연변은 자연경관과 인문풍정이 독특하니 꼭 와보셔야 해요.”

3월 5일 오후, 려애휘위원은 소조회의 시작전 회의장에 일찍 도착해 호북성에서 온 엄건병위원과 마주쳤다. 둘은 서로 길림성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갔다.

“작년에 우리 길림성은 현대화 농업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어요. 소고기 도축량도 두배로 늘어 전국 11위에서 5위로 도약했고 인삼 산업 종합생산액도 800억원을 돌파했죠...” 길림성에 대한 화제가 나오자 려애휘는 바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특히 2월 8일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업보고를 청취할 때 한 중요 연설은 길림 진흥 발전에 길이를 안내했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 발전에 더욱 신심을 가지게 했죠.”



▲ 3월 5일, 길림성 소속 전국정협 위원 려애휘(오른쪽 사람)가 소조회의에 앞서 호북성에서 온 엄건병위원과 교류하고 있다.

산업 발전 잠재력에서 생태자원으로서, 길림 려사문화로부터 관광 로선의 추천에 이르기까지 려애휘의 소개는 길림에 대한 엄건병위원의 이해를 더욱 깊게 했다.

“전국정협 위원으로서 자신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전국 랑회 플랫폼을 통해 길림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 더 많은 위원들이 길림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고 싶어요.”

두 위원이 열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조회의의 시작 시간이 다가왔다. 려애휘는 엄건병위원에게 <2024 길림의 해>라는 책을 선물하며 진심으로 되는 요청을 보냈다.

“꼭 길림성에 오세요. 제가 길림성에서 기다릴게요!” “좋아요!” 단호한 답변과 함께 봄의 약속이 피어났다.

/ 길림일보



▲ 길림성 전국인대 대표들이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하고 적극 건언헌책하고 있다. / 길림일보



▲ 길림성 전국정협 위원들이 분조 심의 시 적극 발언하고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길림일보